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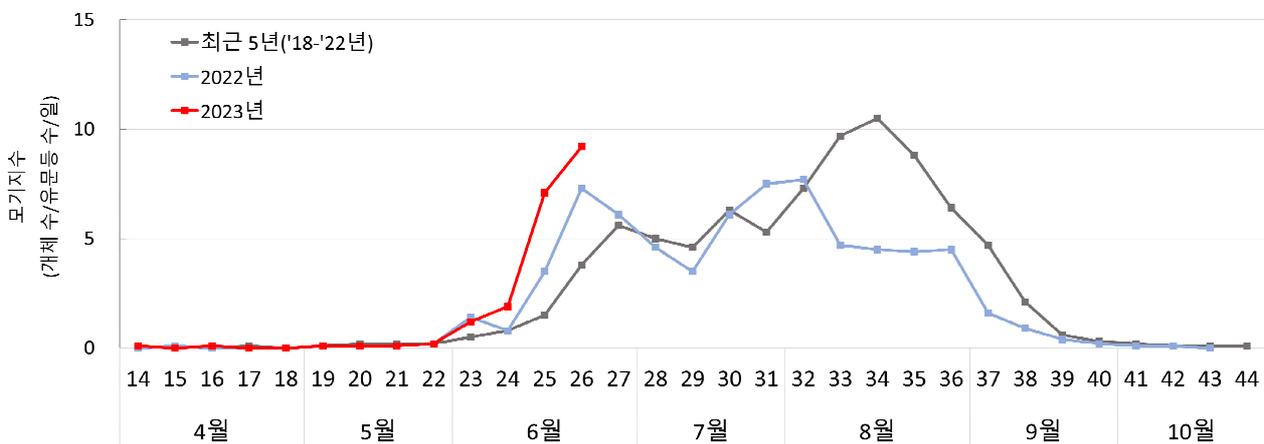
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,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!

- '23년 모기의 하루 평균 수,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증가(25주차 기준)
- 전체 모기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 비율, 전년 동기간 대비 1.2~2배 증가
-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자는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 주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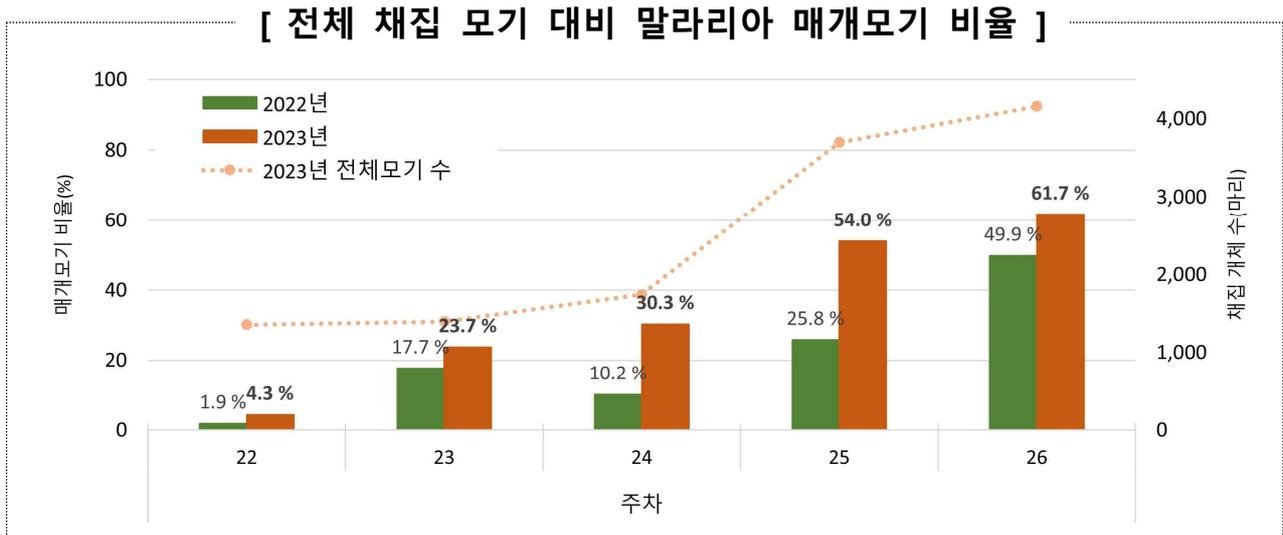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「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」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(인천, 경기북부, 강원)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,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.

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, 하루 평균 모기지수*가 25주차에 7.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(1.5마리) 대비 약 5배, 전년(3.5마리)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26주차는 9.2마리로 각 약 2.5배, 1.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모기지수(Trap Index, TI) = 하룻밤에 한 대의 유문등에서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



또한,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%로 전년(25.8%) 대비 2배 증가, 26주차에는 61.7%로 전년(49.9%) 대비 1.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

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*,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,

* '23년 26주차까지 말라리아 발생자 수는 302명, 전년 동기간(112명) 대비 169.6% 증가

질병청은 관계 부처* 등과 함께 협력하여 「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」을 추진 중에 있으며,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.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, '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'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**에 공개한다.

* 국방부 육군본부,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,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,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 지역 보건소 등

**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/발간자료/실험실소식지 : <http://npt.kdca.go.kr>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,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받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< 말라리아 예방수칙 >

- ◆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**4월부터 10월까지 야간(일몰 직후 ~ 일출 직전)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**
- ◆ 야간 외출 시에는 **긴 소매, 긴 바지를 착용**하고,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
- ◆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**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**하고,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
- ◆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, 군 복무 후 발열, 오한,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**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** 받을 것
- ◆ 말라리아 **경보발령지역 거주자**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**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**할 것

< 말라리아 의심증상 >

- ◆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오한, 고열,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됨
- ◆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, 두통이나 구토,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음.

- <붙임> 1.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및 2023년 감시지점**
2. 말라리아 관련 질의응답(Q&A)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희일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사	신현일 (043-719-8525)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황경원 (043-719-7160)
		담당자	연구사	이소담 (043-719-7175)

붙임 1

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및 2023년 감시 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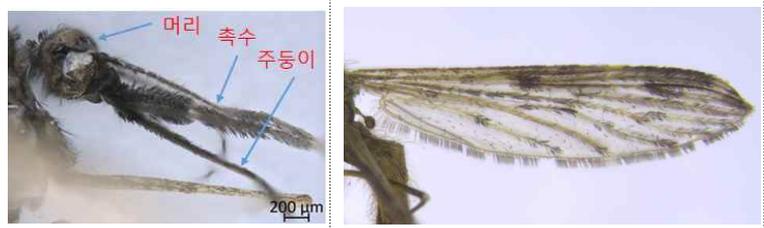
□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

- (형태학적 특징)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'얼룩날개모기(Anopheles spp.)'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형(中形)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음. 휴식 시 복부를 40~50°의 각도로 들고 있고,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이 특징.
- (서식 및 활동) 유충은 논, 수로, 웅덩이 등 물 표면에 수평으로 서식하며, 산란기의 암컷 모기는 야간에 소, 말,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함 (흡혈활동시간 19~05시)

[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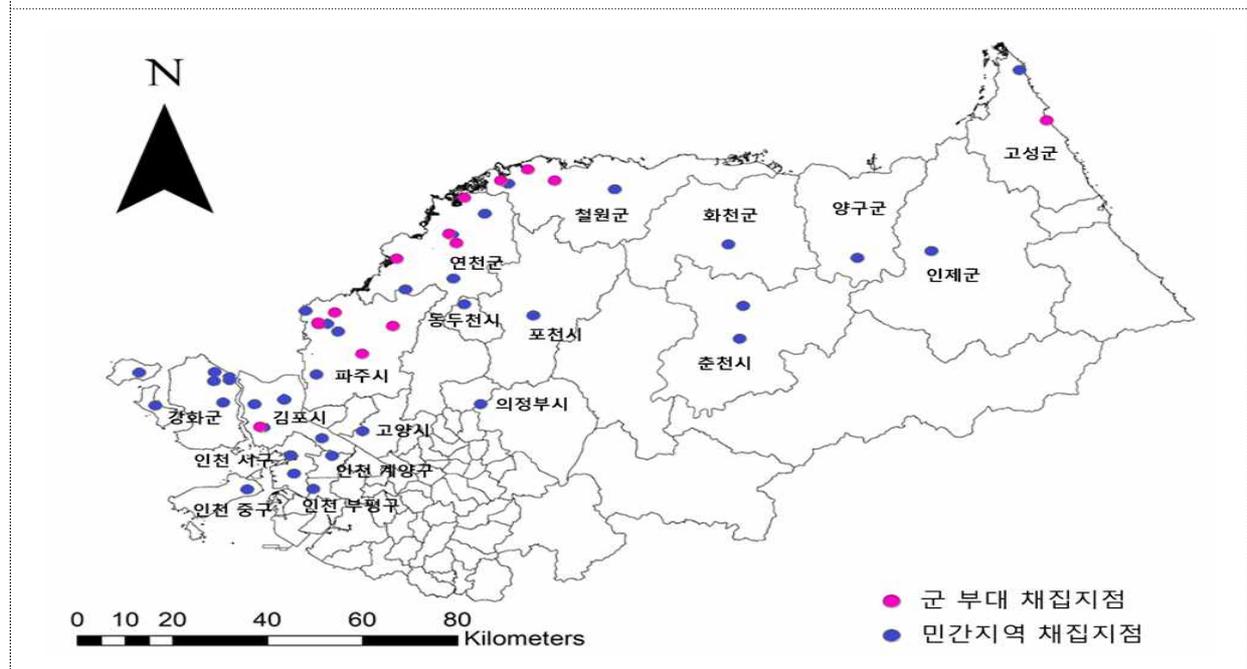
[얼룩날개모기류의 머리와 날개 특징]



□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

- 3개 시.도의 50개 지점: 민간 36개 지점, 군 14개 지점

<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>



Q1.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?

-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,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, 증식을 반복합니다.
-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,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.

Q2.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?

-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수분 내지 한두 시간 동안 오한, 두통,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열기를 거쳐, 따뜻하고 건조한피부, 빈맥,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-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집니다.
-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입니다.
* 사일열말라리아 3일간격(72시간), 열대열말라리아 36-48시간(다소불규칙)

Q3.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?

-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,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-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,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.

Q4.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?

- 국내 위험지역은 휴전선 인근지역인 인천광역시, 경기도·강원도 북부지역이 해당됩니다.

Q5. 매개모기의 주요활동시간대는 언제인가요?

-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흡혈활동 시간은 일몰 직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을 통해 흡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* 주요 흡혈 시간: 19:00~05:00 (계절별 상이)